

비엔날레 주제전 진행 큐레이터 클라라 김·크리스틴 Y 김 인터뷰

“정부 주도 건축물 통해 과거·미래 봅니다”



광주비엔날레(9월7일-11월11일) 개막이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간 구성과 전시 작품 설치가 진행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8 비엔날레 큐레이터 클라라 김(왼쪽), 크리스틴 Y 김

‘상상된 경계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단일 예술감독 대신 11명의 큐레이터가 7개의 주제전을 진행하는 컨셉으로 진행된다. 큐레이터별로 자신들이 선택한 아티스트들과 어떻게 주제를 구현해 낼지 흥미로운 대목이다.

지난 16일 현재 광주에 머물며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인 두명의 큐레이터 클라라 김(Clara Kim)과 크리스틴 Y.김(Christine Y. Kim)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울 출생으로 5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현재 영국 테이트모던 국제미술 수석 큐레이터로 활동하는 클라라 김은 ‘상상된 국가들/ 모던 유토피아’를 주제로 전시를 기획중이다. 그녀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출신 작가 26명을 전시장으로 초대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전 세계에서 세워진 건축물을 통해 새 국가를 건설하려했던 움직임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려합니다. 정부 주도로 지은 여러 건축물은 미래를 향한 기대를 품고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발전적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했죠. 건축물들을 직접 전시하는 건 아니고,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은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보여줍니다. 건물을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녀는 한국의 경우 건축가 김종업이 설계한 ‘세운상가’에 주목했으며 초대 작가 알라 유니스의 작

●클라라 김
세운상가·이라크 체육관 역사 서술 산업화·기술발전 갈망 등 담겨 건축 통해 새 국가건설 야망 이야기

●크리스틴 Y. 김
‘예술과 포스트인터넷 조건’ 주제 인터넷시대 정보격차 폐해 지적 가상화폐 등에 대한 질문도

품 ‘더 위대한 바그다를 위한 계획’을 통해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하고 사담 후세인의 이름을 딴 체육관의 역사를 서술하며 이라크 정치적 변혁기를 더듬어본다. 또 르 코르뷔지에가 참여한 인도 최초의 계획도시 찬디가르 등의 건축물도 다룬다.

“각각의 건물은 히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산업화와 기술 발전의 갈망, 국제적 연원이 담겨있죠. 수도를 완공한 나라들은 그곳에 미래의 국가가 희망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했죠.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작업들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건물들이지만 세계 각국 모두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니다.”

오는 21일까지 머물며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크리스틴 Y. 김은 LA카운티미술관 큐레이터로 리타 곤잘레스와 함께 ‘예술과 글로벌 포스트인터넷 조건’을 주제로 전시를 선보인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참여작가로 크리스틴 Y. 김 색선에 참여하는 김아영 작가도 함께했다.

“방대한 정보들이 떠 다니는 인터넷상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현대인들은 정부, 군인, 기업, 개인 등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며 인터넷상에서 여러가지 일들과 부딪힙니다. 포스트 인터넷 시대 정보격차가 불러오는 여러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 환기시키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16명의 작가(팀)를 초청한 그녀는 영상, 퍼포먼스,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해 가상화폐, 대안적 디지털 플랫폼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녀가 초청한 자크 블라스(Zach Blas)의 영상작업은 국가 압박과 가속화된 자본주의를 위한 도구로 변형되는 인터넷 폐해를 비롯해 네트워크의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작품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출신 유학자 고광선 선생 영정 발굴

72세 모습...제자 650명 길러 조선시대 어진화가 채용신 작품



현와 고광선 선생 영정.

현와(弦窩) 고광선(1855-1934)은 일제 강점기 서창지역의 근대유학자로 손꼽히는 선비다. 광주시 남구 압촌마을에서 태어나 수백 명의 제자를 기른 당대 유학자이자 교육자다.

그의 호 ‘현와’ (弦窩)는 율림 ‘현’, 율집 ‘와’로 비록 남루한 율집에 은둔하지만 세상을 향해 큰 울림을 낸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뜻 있는 제자를 길러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최근 현와 고광선 영정이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에 의해 발굴돼 눈길을 끈다. 영정은 고광선 선생이 72세 때인 1926년(병인년) 6월에 그려진 것으로 크기는 56.5cm×94cm이며 족자는 63.5cm×105.5cm다. 이 영정은 종후손인 고달석 씨가 보존하고 있다.

현와 선생은 조선 때 좌랑을 지낸 하천 고운(1479-1530)과 손자인 의병장 총령공 제봉 고경명의 7대손인 복헌 고정현의 후손이다. 고광선의 아버지는 호은 고박주, 어머니는 행주 기 씨 기우진의 딸이다.

고광선은 노사 기정신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노사 선생 타계 후에는 나주의 덕암 나도규를 찾아가 공부를 했다. 이때 수심, 양성, 정사, 실체로서 배움의 근본을 삼았다. 1978년에 간행된 ‘봉산사지’ (鳳山祠誌)에 따르면 “명현(名賢)은 영남에서 많이 나오고 충절은 호남에서 많이 나왔다”는 말의 대를 잇는 인물 중의 한 사람, 한말의 유학자요 교육자였던 고광선, 그의 문인 수는 650명에 이른다”고 한다.

고광선은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고종이 승하하자, 나라 잃은 울분을 삭이며 3년간 읍궁암(泣弓岩)이라는 커다란 바위 앞에서 곡을 했다고 한다. 현재 광주시 서구 용두동 봉학마

을 봉황산 중턱에 읍궁암이라고 써진 바위가 있다. 고광선 사후 광주향교 유림들의 논의를 거쳐 봉산사를 세우고 위패를 봉안했지만 2016년 현재 무너져 빈터만 남았다.

한편 영정을 그린 사람은 조선시대 마지막 어진화가 불리는 석지 채용신(1850-1941) 화백이다. 채용신은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쳐 활동했으며 전통과 서양화법을 조화롭게 구사한 대표 화가로 평가받는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관계자는 “후손들의 기증 의사를 확인 중이며 이를 토대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국 에딘버러에 울려 퍼진 우리 소리 우리 가락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페스티벌 참가 판소리·태평소 등 공연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페스티벌에 참가한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세인트 자일스 대성당에서 공연하는 모습.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세계 최대 공연예술축제인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페스티벌’에 처음으로 참가해 공연을 마무리했다.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에딘버러 프린지페스티벌에서는 50여 개국, 1만 여명의 예술가들의 코미디, 음악, 어린이극, 뮤지컬, 오페라, 무용 등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김광복 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자와 단원 43명은 지난 15일(현지시간)과 16일 에딘버러 명소인 로열 마일 거리 야외 무대와 세인트 자일스 대성당 등에서 3회에 걸쳐 공연을 펼쳤다.

이번 무대에는 국악관현악곡을 비롯해 판소리, 타악, 태평소 등 한국 전통음악을 알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길놀이에서 고수로 참여한 김광복 지휘자는 태평소 연주를 선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공연 중에는 사극 복장을 한 백제예술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깜짝 등장해 즉흥 연기를 펼쳤다. 피리협주곡 ‘장부타령’에서는 사물놀이 가 중심이 돼 관객과 하나 되는 흥겨운 시간을 만들었다.

세인트 자일스 대성당에서 펼쳐진 공연에서는 정오 미사에 참여한 1000여 명의 관객들이 성전의 엄숙한 분위기를 깨고 우리 가락에 맞춰 춤을 추는 이색 광경이 연출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성악콩쿠르’ 본선 진출자 11명 결정

25일 본선 경연 무료 관람 가능

2018정음성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 본선 진출자 11명이 결정됐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18일 호남신학대학교 예음홀에서 광주성악콩쿠르 2차 예선을 진행하고 최종 결선에 진출할 11명(남자 7명, 여자 4명)을 선발했다. 이번 광주성악콩쿠르에는 광주·전남 출신 22명을 포함해 국내외 109명이 참가했다.

최종 입상자 8명을 뽑을 광주성악콩쿠르 본선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본선 진출자들은 광주 출신인 세계적 음악가 정율성의 가곡 중 12곡을 부를 예정이다. 사전에 약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며, 예약은 온라인 링크



‘광주성악콩쿠르’ 2차 예선 진행 모습.

(bit.ly/2Or0yN8)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2016년 9월 2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